KIWOOM DAILY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미-이란 협상 기대감, 인플레이션 안도감 등으로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4일(화) 미국 증시는 미-이란 후속 협상 기대감 및 WTI 유가 급락(-8.1%), 3월 PPI 컨센 하회 등 전쟁 리스크 완화 속 실적 기대감에 따른 엔비디아(+3.8%), 마이크론(+9.2%), 알파벳(+3.6%) 등 AI 및 테크주 동반 급등 효과로 강세(다우 +0.7%, S&P500 +1.2%, 나스닥 +2.0%).

4월 이후 주식시장은 미-이란 전쟁 과정 뿐만 아니라, 전쟁의 인플레이션 충격을 확인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됐던 상황. 인플레이션 향방이 연준의 통화정책과 시장금리 방향성을 만들어 내기 때문. 이런 관점에서 지난 3월 CPI의 컨센 하회에 이어, CPI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3월 PPI(헤드라인 기준, YoY, 4.0% vs 컨센 4.6%/MoM, 0.5% vs 컨센 1.1%)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은 안도요인.

물론 4월에도 3%대 중반 인플레이션(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모델 상 4월 CPI 3.6%)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시장도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파키스탄 중재 하에 미국과 이란이 이전보다 협상 의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 미국 등 주요국 1분기 실적시즌 모멘텀이 생성되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 업사이드를 부여하는 요인. 따라서, 전쟁의 청구서 역할을 하는 3~4월 지표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정적인 주가 영향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미-이란 후속 협상 기대감 속 미국 반도체주 강세 등 대외 호재 속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8,000억원대 순매수 하는 등 긍정적인 수급 여건에 힘입어 2%대 급등 마감(코스피 +2.7%, 코스닥 +2.0%).

금일에도 전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 AI, 반도체 등 주도주 중심의 나스닥 강세, 1,470원대로 레벨 다운된 달러/원 환율 등으로 대내외 호재로 코스피는 6,000pt 돌파 후 안착을 시도할 전망.

3월 중 전쟁 리스크 절정 기간에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고점대비 10% 내외의 주가 급락세를 겪었던 상황(ex: 3월 중 고점대비 최대 하락률, S&P500 -7.8%, 닛케이225 -13.2%, 닥스 -11.8%, 코스피 -19.1%). 그러나 4월 이후 미-이란 휴전 기대감 등에 힘입어 대부분 증시가 급락분을 만회하고 있는 분위기. 전세계 대장주 역할을 하는 미국 S&P500과 나스닥은 전쟁 직전인 2월 말에 비해 주가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점도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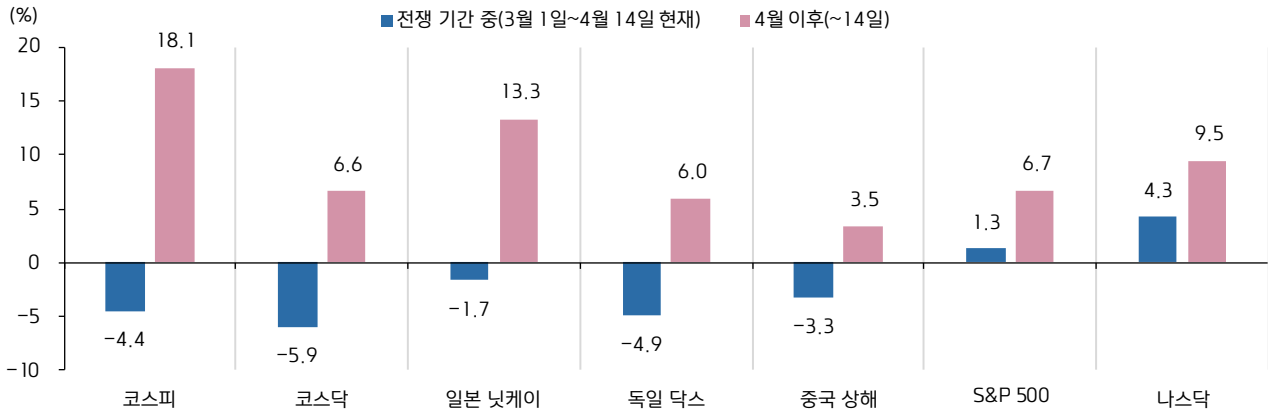
코스피의 경우, 전쟁 직전 레벨인 6,200pt선 수준으로 아직 복귀하지 못하기는 했음. 그러나 4월 월간 수익률 관점에서는 코스피(+18.1%)의 주가 상승 탄력이 S&P500(+6.7%), 닛케이225(+13.3%), 닥스(+6.0%) 등 다른 증시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볼 필요.

지난 1~2월과 유사하게 4월 코스피의 상승률이 컸던 것은 3월 중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기술적인 되돌림 강도 역시 강했던 측면이 있음. 하지만 이보다는 그간 코스피 랠리의 재료였던 상대적인 이익 모멘텀 우위 현상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확대된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

실제로 MSCI 국가 지수 관점에서 월간 선행 EPS 증가율을 업데이트 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MSCI 한국 지수의 선행 EPS 증가율(YoY)은 "2월 +135% -> 3월 + 177% -> 4월 +195%"를 기록 중이기 때문. 반면 2~4월 미국(+15% -> +21% -> +23%), 일본(+10% -> +7% -> +5%). 독일(+16% -> +8% -> +5%) 등 여타 증시들의 이익 개선 탄력이 한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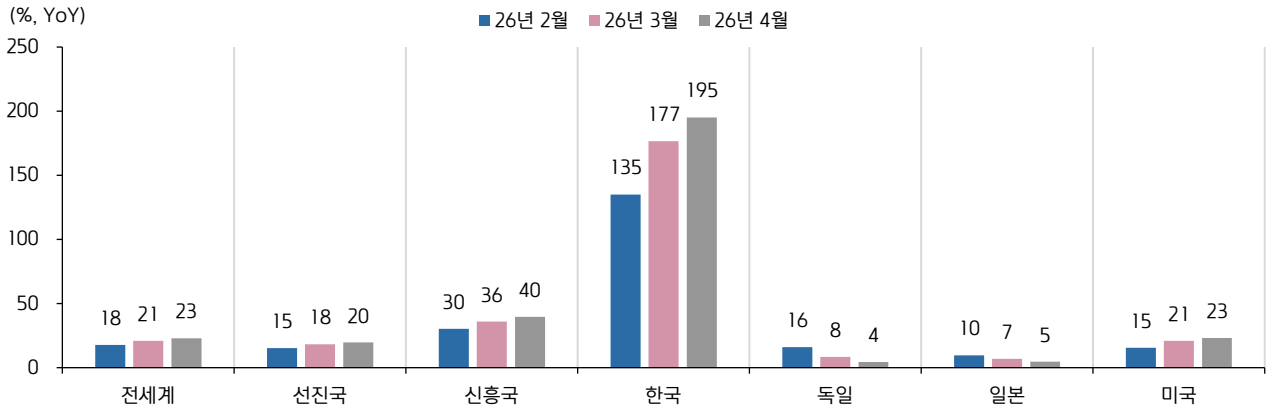
추후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 조정을 받을 여지는 있겠으나, 단기 차익실현 성격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 절대 & 상대적인 이익 모멘텀의 동반 개선 국면에서는 코스피 전고점 이상 수준으로 지수 상방이 더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한 2월말 6,000pt 부근에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10.0배 수준이었던 반면, 현재는 7.3배 수준으로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률이 높은 구간에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이를 고려 시, 향후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도주 분할 매수 대응으로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절.

미-이란 전쟁 기간 중 vs 4월 이후 주요국 증시 수익률 비교: 코스피는 전쟁 직전 주가 레벨로 올라오지는 못했으나, 4월 이후 수익률 상승 탄력은 여타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했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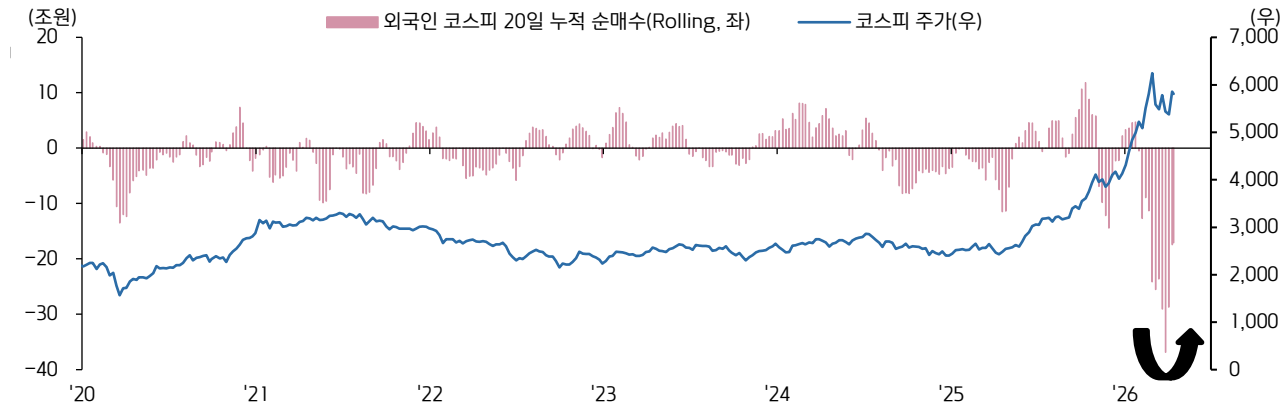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SCI 지수 기준, 최근 3개월 간 주요국 선행 EPS 증가율 비교: 코스피의 절대적인 & 상대적인 이익 모멘텀 우위 현상 지속.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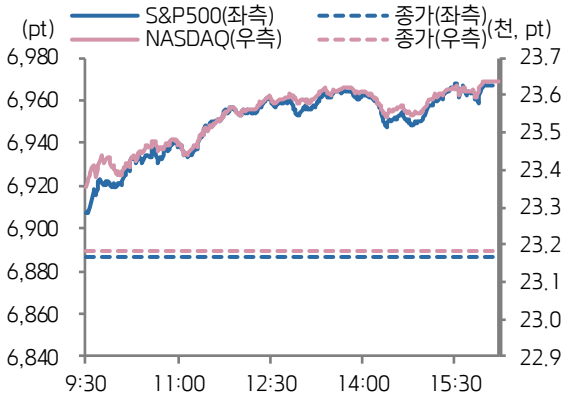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의 코스피 20일 누적 순매수 추이와 코스피 주가: 외국인 수급 환경도 셀 코리아에서 바이 코리아 기조로 전환하려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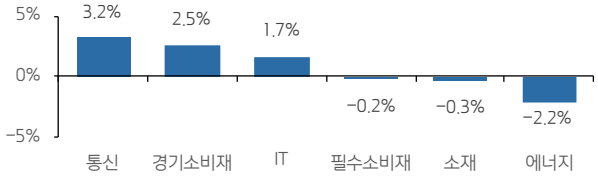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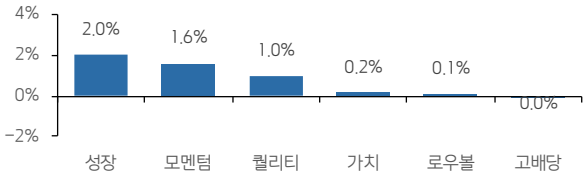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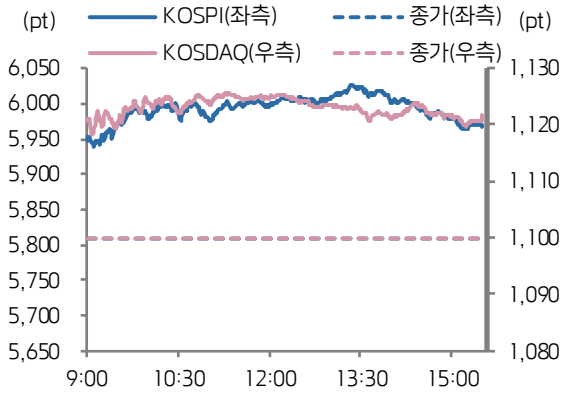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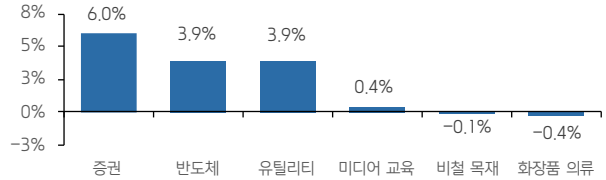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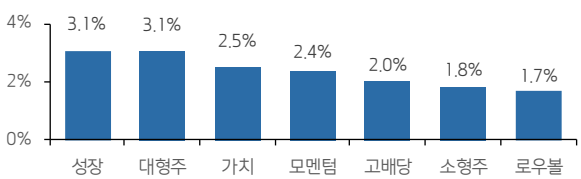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58.83	-0.14%	-4.79%	GM	79.46	+3.42%	-2.29%
마이크로소프트	393.11	+2.27%	-18.72%	일라이릴리	922.50	-0.76%	-14.16%
알파벳	332.91	+3.61%	+6.36%	월마트	125.05	+0.39%	+12.24%
메타	662.49	+4.41%	+0.36%	JP모건	311.12	-0.82%	-3.44%
아마존	249.02	+3.81%	+7.88%	엑손모빌	149.24	-2.23%	+24.02%
테슬라	364.20	+3.34%	-19.02%	셰브론	187.02	-2.48%	+22.71%
엔비디아	196.51	+3.8%	+5.37%	제너럴일릭트릭	125.05	+0.4%	+12.2%
브로드컴	380.78	+0.27%	+10.02%	캐터필러	794.25	+0.32%	+38.64%
AMD	255.07	+3.34%	+19.1%	보잉	223.77	+0.73%	+3.06%
마이크론	465.66	+9.17%	+63.15%	넥스트에라	91.31	-1.1%	+13.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5,967.75	+2.74%	+41.61%	USD/KRW	1,472.70	-0.67%	+2.31%
코스피200	897.00	+3.01%	+48.02%	달러 지수	98.12	-0.25%	-0.2%
코스닥	1,121.88	+2%	+21.22%	EUR/USD	1.18	+0.31%	+0.43%
코스닥150	1,882.54	+0.89%	+21.66%	USD/CNH	6.81	-0.13%	-2.36%
S&P500	6,967.38	+1.18%	+1.78%	USD/JPY	158.79	-0.41%	+1.33%
NASDAQ	23,639.08	+1.96%	+1.71%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8,535.99	+0.66%	+0.98%	국고채 3년	3.337	-4.3bp	+38.6bp
VIX	18.36	-3.97%	+22.81%	국고채 10년	3.652	-6bp	+26.7bp
러셀2000	2,705.67	+1.32%	+9.02%	미국 국채 2년	3.745	-2.7bp	+27.2bp
필라. 반도체	9,224.12	+2.04%	+30.23%	미국 국채 10년	4.248	-4.5bp	+8.1bp
다우 운송	21,263.77	+2.03%	+22.51%	미국 국채 30년	4.860	-3.7bp	+1.7bp
상해종합	4,026.63	+0.95%	+1.46%	독일 국채 10년	3.024	-6.8bp	+16.9bp
항셍 H	8,671.61	+0.81%	-2.7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847.57	-0.91%	-9.83%	WTI	91.28	-7.87%	+60.14%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94.79	-4.6%	+55.78%
Eurostoxx50	5,984.51	+1.35%	+3.33%	금	4,850.10	+1.73%	+10.06%
MSCI 전세계 지수	1,054.53	+1.39%	+3.93%	은	79.53	+5.11%	+12.65%
MSCI DM 지수	4,563.68	+1.33%	+3.01%	구리	608.35	+1.55%	+7.07%
MSCI EM 지수	1,565.04	+1.89%	+11.44%	BDI	2,250.00	+2.23%	+19.87%
MSCI 한국 ETF	146.68	+3.86%	+50.87%	옥수수	452.50	+0.33%	-0.44%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01.25	+1.69%	+13.18%
비트코인	74,135.85	+1.28%	-15.42%	대두	1,172.75	-0.4%	+9.17%
이더리움	2,315.64	+2.77%	-22.23%	커피	297.60	+0.46%	-8.7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4월 14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